



솔루션을 원한다면 (주)솔버스와 상의하라!

## DM에서 상업인쇄 · 패키징 가공까지 시장 선도

(주)솔버스(대표이사 서용수)는 신용카드의 제조, 발급, 검수, 발송, 분류, VAN, 인쇄, DM을 포괄하는 토털 솔루션 업체다. 이를 토대로 발송관련 솔루션, 인쇄 솔루션, POD 및 OMS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인쇄 분야에서도 다양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솔버스가 DM, 상업인쇄, 패키징 가공을 포괄하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무장하고 인쇄인 곁에 한발 더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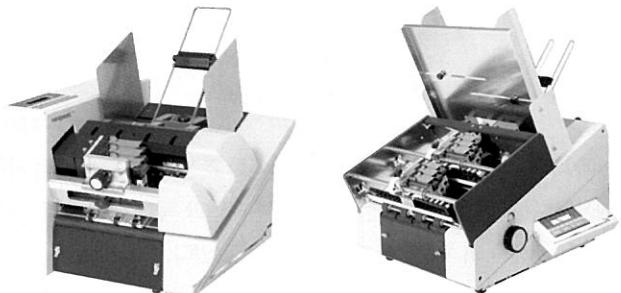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수익가치 지속 창출 및 매출·수익 극대화

솔버스는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고객 요구사항 변동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노하우는 물론, 시장에 필요한 우수 기술 패키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기술 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프로그램 등 수십 종의 산업재산권 및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보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가치 창출 및 매출·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 다양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솔버스가 공급하는 솔루션은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도 봉투출력 및 우편물 자동 봉입봉합 시스템, 흑백 디지털 인쇄 시스템 및 디지털 인쇄 선후 처리 시스템, 페이퍼 및 카톤 래핑 시스템 등은 인쇄인들이 눈여겨 볼만한 시스템이다.



AS-930(좌) AS-960(우) 디지털 주소 출력 시스템



최대 356mm 크기의 문서까지 A4사이즈와 동일한 속도로 인쇄할 수 있는 코닥디지털마스터 HD300

### 네오포스트 AS930/960 디지털 주소 출력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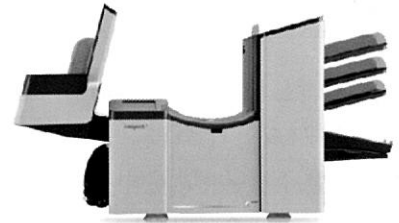
디지털 인쇄는 기존 오프셋 인쇄로 처리하기 힘든 소량 다품종 및 가변데이터의 출력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A4/A3 크기의 용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청첩장 또는 초대장 같은 봉투 인쇄에도 적용된다. 청첩장이나 초대장은 일반적으로 봉투에 넣어 전달되는데, 이때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명기된다. 기존의 봉투 인쇄기는 보내는 사람을 동일하게 인쇄할 수밖에 없는 오프셋 인쇄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처리됐다. 또한 수량도 최소 500통이 기본이다.

솔버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인 네오포스트의 AS930/960 모델은 소량이면서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모두 다른 청첩장 등을 가변데이터 인쇄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주소 출력 시스템이다. 또한 상품권이나 쿠폰에 인쇄되는 가변 넘버링이나 바코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AS-930과 AS960 모델 모두 시간당 3만9000통의 속도와 최대 600dpi의 해상도로 쿠폰, 엽서, 봉투 등에 가변 주소, 넘버링, 바코드 등의 응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출력 영역만 각각 AS-920은 1.5인치(3.8cm), AS-960은 3인치(7.6cm)로 차이가 난다.

### 네오포스트 DS75 우편물 자동 봉입·봉합 시스템

네오포스트의 DS75 모델은 편지나 안내장 등을 봉투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접어주고 봉입하고 풀칠까지 해주는 우편물 봉입·봉합시스템이다.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더딜 수밖에

없었던 우편물 처리속도를 자동 봉입 처리함으로써 시간당 최대 3600통까지 높였으며, 이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했다. 솔버스는 시간당 최대 3만통까지 초고속으로 봉입하는 시스템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



DS-75 우편물 자동 봉입·봉합 시스템

### 코닥 디지털마스터 HD300 흑백 디지털 인쇄기

코닥의 디지털마스터 HD300은 최대 356mm 크기의 문서까지 A4사이즈와 동일한 속도로 인쇄할 수 있는 유일한 흑백 디지털 고속 인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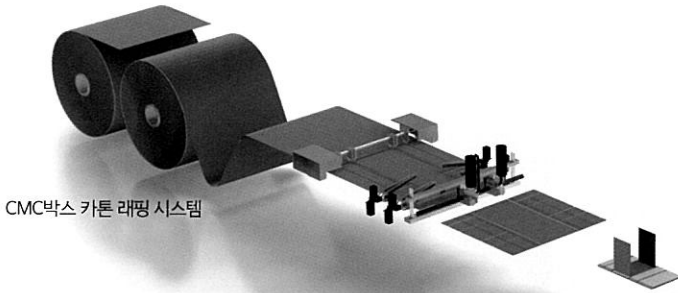
기존의 흑백 디지털 고속인쇄기는 A4사이즈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출력할 때는 제품 구조상 A3사이즈 출력할 때와 같이 출력속도가 반감되지만, 코닥 디지털마스터 300 모델은 용지 길이 사이즈가 250mm에서 최대 355mm까지는 300ppm 속도로 양면 출력이 가능하다.

하이텔베르그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품을 코닥이 인수해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제품으로 내구성엔 인쇄기처럼 견고하며, SPD(Small Particle Developer)방식 채택으로 고화질의 인쇄품질을 구현하고 있다. LED 이미징 테크놀로지 방식으로 600dpi 해상도에 60~200g/㎡의 용지를 월 최대 800만장까지 생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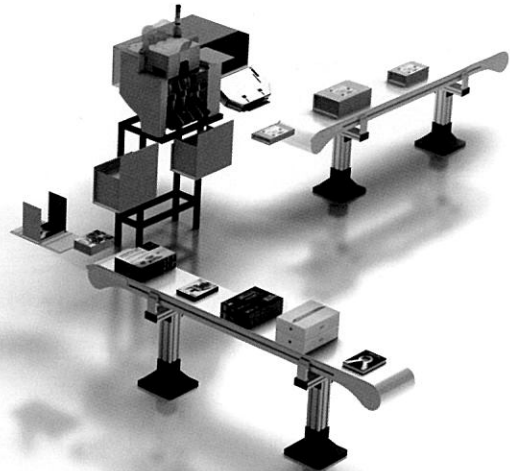


1. 회의실에 걸린 각종 특허증 2.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증 마크





CMC박스 카톤 래핑 시스템



### 레이저맥스 Stack2220 디지털인쇄 선후처리 시스템

스웨덴 제조사인 테크나우 레이저맥스는 고속 프린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선후처리시스템 전문 공급업체로서 HP, 제록스, 캐논, 리코, 스크린 등 주요 프린터업체와 글로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솔버스는 1990년 중반부터 레이저맥스 후처리시스템을 국내에 공급 및 서비스하고 있다. KT, 건강보험공단, 국제청을 비롯해 최근에는 HP T200 잉크젯 풀컬러프린터를 구매한 신진전산품과 Screen JJ520 잉크젯 풀컬러프린터를 구매한 대명아이티에스에 각각 설치했다. 55~200g/m<sup>2</sup> 무게 150~520m 넓이의 용지를 분당 137m의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

### CMC JWR 페이퍼 래핑 시스템

이탈리아 브랜드인 CMC의 CMC JWR은 우편물 자동 봉입·봉합기와 인라인 봉투제작 및 인쇄기가 결합된 신제품이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전 세계 우편물 처리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제품이다. 현재 대량의 우편물 발송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대다수 초고속 봉입·봉합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기 제작 및 인쇄된 날개 봉투들을 이용해 우편물을 봉입·봉합하고 있어서, 봉투의 역할은 단순히 내용물을 잘 보호하기 위한 매개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CMC JWR은 롤 용지에 원하는 내용을 출력하고, 출력된 롤 용지가 페이퍼 래핑시스템을 통해 바로 봉투로 만들

어짐으로써 프로세스의 개선 및 봉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최대 시간당 3만통을 제작할 수 있는 모델을 보유한 CMC 페이퍼 래핑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약 300여대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CMC Box 카톤 래핑 시스템

CMC Box 카톤 래핑 시스템은 페이퍼 래핑시스템과 유사한 성격으로 현재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업종 중 하나인 패키징 택배업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문한 책은 1권, 혹은 2권 이상을 주문할 때도 몇몇 형태의 동일한 크기 박스에 포장돼 배송되고 있다. 배송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공간 및 비용 등의 효율성의 문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크기의 박스 배송으로 인한 처리의 불편함,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 피해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포장될 배송물의 크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그 크기에 맞춰 자동 포장되는 카톤 래핑 시스템은 패키징 택배 물량이 많은 발주업체라면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새로운 투자 아이템이다. 외국의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용과 운용 효율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 210×150×20mm, 최대 600×400×210mm 크기의 박스를 1:1 자동 패키징 시스템에 따라 분당 최대 15개의 속도로 박스를 자동 제작, 패키징한다. ↻



CMC JWR 페이퍼 래핑 시스템



〈인터뷰〉서용수 (주)솔버스 대표이사

## “솔버스에게 있어 고객은 2인3각의 한 주체다”

### Q 솔버스의 경영 이념과 운영 원칙은?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감동하여 발전하는 회사’를 모토로 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직원 및 가족의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 축소되고 있는데, 임직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회사를 얘기할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를 통해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직원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연구소를 두고, 11명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각 나라에서 공급하는 기계 및 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부합하도록 현지화하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 Q 솔버스에게 있어 고객은?

고객은 2인3각의 한 주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한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한사람도 나아갈 수 없는 동반자 관계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업방침은 고객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돼 있다. 솔버스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이 이익을 내야 솔버스와 고객 모두 윈윈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Q 극복했던 시련과 보람됐던 성과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시련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던 것 같다. 시련은 5년 단위로 찾아오는 것 같다. 1998년 IMF 구제금융,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가 5년 단위로 시련을 가져왔다. 내년이 5년 주기인 2013년이라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모두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

보람됐던 성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내에 최초로 POD라인을 공급한 경험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국내 고속 봉입-봉합기를 KT에 대량으로 납품함으로써 회사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국내 최초로 카드 발송기에 인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시장점유율 100%를 자랑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 Q 솔버스의 미래 비전은?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에 치우치기보다는 가치를 높이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 분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인쇄분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관련한 토털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해당 분야에서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비전을 키우고 있다.